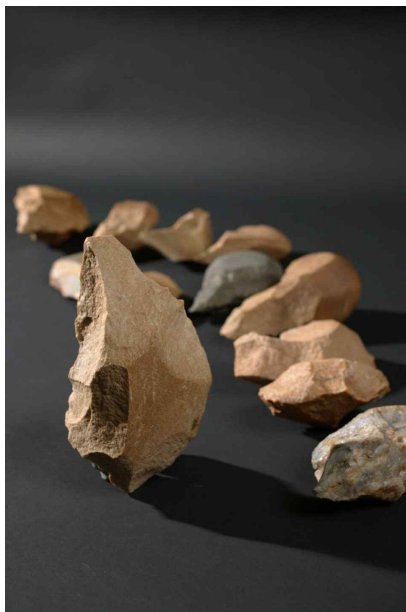


제71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1일)

세계의 구석기 문화

이경수, 101호, 구석기실 18:00 ~ 18:30

세계의 구석기문화 가운데 이른시기의 구석기문화는 올도완(Oldowan) 문화와 아슐리안 문화로 나뉩니다. 올도완 문화는 약 260만년-170만년 전까지의 가장 이른 시기의 석기문화로 큰 돌로 작은 돌을 내려치는 단순한 방법으로 만든 석기군입니다. 이와는 달리 아슐리안 문화는 약 170만년 전부터 시작되며, 주먹도끼라 불리는 크기가 크고 평면 형태는 침두형이거나 계란모양의 양면가공한 석기가 대표적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개별 도구를 나타내는 주먹도끼라는 용어 보다는 전체적인 석기군의 특성을 총괄하는 아슐리안(The Acheulean, the Acheulean Tradi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슐리안은 프랑스 아미앵(Amiens)에서 북쪽으로 23마일 떨어져 있는 생 따술(St. Acheul) 지방에서 19세기 중반에 발견된 주먹도끼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전반적인 성격은 주먹도끼와 가로날도끼와 같은 대형의 자르는 도구를 중심으로 하는 석기 공작이다. 유럽 서반부, 중동, 아프리카, 영국,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대략 170만 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0만 년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각지 출토 주먹도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확인된 것은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미 공군 하사관 그렉 보웬(Greg Bowen)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세계의 구석기문화 전통은 1940년대 초반 모비우스(Hallam L. Movius, Jr)가 제시한 개념이 통용되었는데, 서양은 주먹도끼 문화권(Handaxe Culture), 남부아시아와 동아시아는 찌개 문화권(Chopper-Chopping Tool Culture)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비우스 이분법적인 구석기 문화 전통의 구분은 연천 전곡리를 필두로 동아시아에서의 주먹도끼의 빈번한 발견 사례의 증가와 함께 이제 폐기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71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1일)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임혜경, 116호, 고려2실 18:00~18:30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로 꾸준히 사회적 기반을 넓혀 갔습니다. 고려가 건국될 무렵에는 이미 사람들의 심성에 보편적인 사상이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큰 틀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고려 왕조는 적극적인 숭불崇佛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각지에 사찰을 건립하고, 왕실이 주도하여 각종 불사佛事를 일으켰으며, 명망 있는 고승들을 왕사王師와 국사國師로 임명하여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정국존慈淨國尊 미수彌授(1240~1327)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의 주지를 지내는 동안 왕명을 받아 경전을 풀이한 주석서를 92권이나 지었습니다. 지금 고려2실에는 전시되어 있는 자정국존비 탁본을 보면 그의 생애를 상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법주사 경내에 있는 자정국존비는 일반적인 고승비가 귀부龜趺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그 위에 이수螭首를 얹는 형태인 것과 달리 자연 암반을 직사각형으로 파내어 비좌碑座를 만들고, 다른 재질의 석재로 비신을 만들어 끼워 넣은 마애비磨崖碑 형식의 매우 독특한 고승비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각종 공양구로 부처와 보살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불교 공양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고려2실에는 범음구梵音具와 향로香爐, 음식을 올리는 그릇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범음구는 깨달음을 일으키는 부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부처의 음성은 청정하고 미묘하여十方 세계에 두루 울려 퍼지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 마음에 깨달음의 환희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처를 공양할 때 범종梵鍾, 금고金鼓 같이 청정한 소리를 내는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향로는 세속을 정화하는 청정한 향燐의 상징입니다. 향을 태우거나 바르는 것은 번뇌煩惱의 악취와 때를 정화시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불교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특히 불단佛壇에 올리는 음식물은 심오한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법미法味], 그 뜻이 매우 깊고 오묘하여 곱씹을수록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맛 좋은 음식물에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정갈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공양하였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고려시대에 사찰에서 사용한 다양한 기형의 청동 그릇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71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1일)

조선을 바꾼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김진실, 118호, 조선2실 19:00~19:30

조선은 16-17세기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되어 조선, 명, 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전이었습니다. 조선은 7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명은 북방에서 성장한 후금을 견제하지 못하고 명청교체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은 에도막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이후 격변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청의 침입으로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세력을 키운 후금(청)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다시 큰 전쟁을 겪고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후기에는 이 두 전쟁을 일컬어 양난兩難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무기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신무기인 조총鳥銃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화약무기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살상력이 높은 대형화포를 판옥선이나 거북선에 실어 일본 군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화약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도 발명했습니다. 일본의 조총을 노획하여 제조기술을 확보했고 명나라의 무기 기술을 수용하여 삼안총三眼鏡과 불랑기佛朗機 등을 개발했습니다.

전쟁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참혹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상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위정자는 통렬한 반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도망간 관군을 대신하여 지역의 백성을 지키는 의병장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피란살이를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생생한 경험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봉하여 그 공적을 기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장수, 의병장, 순절자의 이야기를 소설과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영웅의 활약상을 주제로 한 소설을 읽으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전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계속되었습니다.

제71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1일)

무신진찬도

이수경, 202-2호, 서화II실 19:00~19:30

<무신진찬도戊申進饌圖>는 무신년(1848, 헌종14)에 개최된 진찬, 즉 진연進宴보다 적은 규모의 궁중 연향을 그린 그림입니다. 왕실의 어린 대왕대비(순조비 순원왕후, 1789-1857)의 60세와 왕대비(익종비 신정왕후, 1808-1890)의 41세가 겹치는 해였는데, 헌종憲宗(재위 1834-1849)은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경사’라며 궁중 연향을 베풀어 왕실의 경사를 널리 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당시 궁중 연향은 여러 날에 걸쳐 여러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각 행사를 2폭 또는 1폭에 한 장면으로 압축적으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대병, 중병, 소병, 족자 등 크기를 다르게 여러 벌 제작해 왕실에 올리고 행사 담당자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무신진찬의궤』에 따르면, 무신진찬도 대병 5개는 왕실에, 다른 대병 14개는 당상堂上和 낭청郎廳에게, 중병 4개는 별간역別看役에게, 소병 52개는 패장牌將 등에게 보내졌습니다. 같은 대병이어도 왕실용은 100냥, 당상용은 50냥, 낭청용은 40냥으로 비용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중병은 20냥, 소병은 10냥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무신진찬도 8폭병풍 2건과 4폭 병풍 및 족자가 전해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신진찬도>들은 등장 요소와 배치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 무신진찬도 8폭병풍 중 제1·2폭(좌), 제5·6폭(우)조선 1848년, 덕수1663



그림2. 무신진찬도 제5·6폭, 본관12874